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15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75.65원 (-13.65원)

KOSPI

5,967.75 (+159.13, +2.74%)

KOSDAQ

1,121.88(+22.04, +2.00%)

국고채 10년 금리

3.658(-0.05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크레딧 시장 단기부동화 심화 [김상만]
New K-ETF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박승진]
실전 퀀트	Normalizing: 알파로 심리를 타는 전략 [이경수]

기업분석

KB금융	다시 보여줄 리딩뱅크의 위용과 저력 [최정욱]
KMW	미국 시장 최대 수혜주는 KMW입니다 [김홍식]
아이씨티케이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하면 ICTK에 주목해야 한다 [김홍식]
풍산	올해 사상최대 영업이익 달성 가시화 [박성봉]
한국전력	SMP 상한제가 다시 언급될 만큼 쉽지 않은 상황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삼성E&A, 삼성증권, 동국제강, KSS해운, 리노공업, 대성하이텍, 우리넷

하나증권

2026년 4월 15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크레딧 시장 단기부동화 심화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지난주 신용스프레드는 전주에 이어 전반적인 확대세를 보였다. 특수채/은행채 등 초우량물의 경우 약보합 내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전주에 이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긴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만기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단기구간의 약세 폭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단기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만기가 더 짧을수록 확대폭이 컸는데 이는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단기물 위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된 결과라 판단된다.

중동사태와 관련된 전개 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그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응 방식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접근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크레딧 채권시장 또한 안전운행 모드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단기물 쏠림 현상이다.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라 채권 발행 시기를 좀처럼 저울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조달한 후에 상황 변화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하다. 그에 따라 올해 1분기 회사채 발행 및 순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순상환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CP/전단채 등의 단기조달은 작년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현상은 회사채뿐만 아닌 은행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채 발행에서 단기채(만기 1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6년 3월 월간 기준 5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의 경우 특수은행채를 중심으로 발행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채의 비중이 더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참고로 올 1분기 은행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적극적인 움직임의 결과라기보다는 만기도래 물량이 커서 차환성 발행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급과 수요가 모두 단기구간에 집중됨에 따라 현재 크레딧 시장은 단기 시장이 활황(?)이고 가격지표(신용스프레드) 또한 그에 맞추어 형성되고 있다. 은행채/공사채 등 초우량물 1년 신용스프레드(동일 만기 국고채 대비)는 작년 말 대비 하락하였고 회사채/여전채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장기물(3년) 신용스프레드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동사태가 갈피를 잡기 전까지 이 같은 크레딧 시장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투자전략 또한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발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단기 쪽이라도 그나마 조달 창구가 열려있는 것이 다행스럽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향성 베팅에 따른 실익이 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의 방어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026년 4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4/14)

- KoAct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KoAct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미국, 대만, 일본, 한국 증시에 상장된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글로벌 액티브 ETF이다. AI 확산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 AI 서비스가 실생활로 빠르게 확산되며 추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에 학습 단계에 집중되었던 HBM 수요가 DDR5, eSSD, HDD 등 범용 메모리 영역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Agentic AI의 부상으로 데이터 처리와 저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과거와 다른 구조적 업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AI 추론이 범용 메모리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 수년간 주요 메모리 기업들의 투자가 HBM에 집중되면서 범용 DRAM의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쇼티지 현상이 공급사들의 가격 주도권 회복 및 협상력 강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은 고객사들이 2027년 이후 물량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장기공급계약(LTA)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이는 기존 반도체 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급격한 사이클 변동성을 완화하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비교지수인 'Solactive AI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지수'는 유동성 요건(시총 5억달러↑, 평균 거래대금 백만달러↑)을 충족하는 한국, 뉴욕, 나스닥, 도쿄, 대만 증권 거래소 상장 종목 가운데 메모리 IDM, 반도체 소부장,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한다.

상기 유니버스에 대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인 ARTIS를 활용하여 DRAM, NAND 플래시, eSSD, HDD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키워드와 연관된 모든 종목의 스코어를 산출하고, 키워드 스코어가 0 이상인 종목 중 유니버스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키워드 순위와 시가총액 순위를 각각 산정한다. 이어 시가총액 순위에 0.6, ARTIS 키워드 순위에 0.4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스코어의 상위 종목들을 최종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으로 한다. 메모리IDM과 데이터 스토리지 부문은 각각 최대 5개 종목(합산 스코어 상위)을, 반도체 소부장 부문은 최대 30개 종목(합산 스코어 상위)을 선정한다.

비교지수의 정기 리밸런싱은 연 4회(2월/5월/8월/11월 첫째주 수요일)에 걸쳐 진행되며, 카테고리별 비중 기준을 메모리 IDM(최소 40%, 최대 45%), 반도체 소부장(최소 35%, 최대 45%), 데이터 스토리지(최소 8%, 최대 15%) 부문에 각각 적용한다. 지수 내 최종 순위가 1위~3위인 종목들은 20.0%, 4위~7위 4.5%, 8위~10위 4.0%, 그 외 종목들은 4.0% 미만의 비중 한도가 적용된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메모리 IDM 카테고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icron 등이 포함되며, 반도체 소부장 카테고리의 경우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Tokyo Electron, Advantest, Teradyne, MKS Instruments, Entegris, Amkor, Resonac, ASE,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피에스케이, 이오테크닉스, 테스, 하나마이크론 등을 편입 가능 종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스토리지 카테고리에서는 Western Digital, SanDisk, Kioxia, Phison 등의 기업들을 포함할 수 있겠다. 0.5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의 ETF가 되겠다.

도표 1. KoAct 글로벌 AI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oAct 글로벌AI메모리반도체액티브
상장일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기초지수	Solactive 글로벌 AI 메모리반도체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50%
구성종목 수	40종목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방식
정기변경	연 4회 (매 2, 5, 8, 11월 첫째주 수요일)

자료: KRX, 하나증권

Normalizing: 알파로 심리를 타는 전략

실전 퀀트 | 2026.04.15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VIX 하락 시기에 유망한 스타일과 중장기 성과가 높은 스타일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

풍산, HL만도, 하이브, NAVER, 이마트, 파마리서치, 한국가스공사, GS건설, 한화생명, SK바이오팜, 한국전력, DL이앤씨, LG씨엔에스 등

- 최근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매크로 노이즈가 VIX 지수와 금리, 환율 안정화 함께 정상화 구간에 진입
- 공포가 지배하던 시장이 이성을 되찾을 때, 두 가지 축의 전략 제시
- 첫째, 안전선호 완화 수혜 스타일, 공포에 짓눌려 펀더멘털 대비 과하게 밀렸던 종목들의 탄력적 복원력을 취하는 전략
- 둘째, '중장기 성과 상위 스타일(알파 팩터)', 시장의 노이즈 속에서도 구조적으로 승리해온 팩터들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을 선점하는 것
- 위 두 축의 교집합에서 추출된 5대 핵심 스타일(목표주가 괴리, 개인 수급, 거래대금, 낙폭과대, 저평가)에 대한 집중 베팅이 현시점 가장 유효한 알파 창출 전략
- ① 목표주가 괴리 상위

  시장 급락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눈높이(TP) 하향 속도보다 주가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른 경향

  VIX가 낮아지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먼저 '성장성 대비 가장 억울하게 빠진 종목'부터 회귀 본능이 작동

  이는 단순한 낙폭과대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신뢰'와 '시장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이용하는 전략으로 정상화 국면에서 가장 가파른 리바운딩 예상
- ② 개인 순매수 상위

  공포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순매수는 종종 '물리기'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수급은 스마트 머니이자 기관과 외인의 빈집 의미, 의외로 시장 정상화 시기에 핵심 스타일
- ③ 주가 낙폭과대

  VIX 지수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스타일, 지수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은 정상화 국면에서 평균 회귀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분출
- ④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은 시장의 '관심'과 '유동성'의 척도, 안전선호가 완화될 때 자금은 거래가 마른 종목이 아닌, 이미 에너지가 응집된 종목으로 가장 먼저 쏠리는 경향

  시총대비 거래대금 상위주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뛰어난 알파를 기록 중, 성장의 내러티브 척도
- ⑤ 저평가 스타일

  시장이 이성을 찾으면 투자자들은 다시 '안전마진'을 계산, 장부 가치나 수익 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은 정상화 시기의 하방 위험을 차단하는 역할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저평가 스타일은 단순한 반등을 넘어 중장기적 리레이팅의 본진
- 위 5개 스타일 스코어링 상위 종목군은 풍산, HL만도, 하이브, NAVER, 이마트, 파마리서치, 한국가스공사, GS건설 등

2026년 4월 15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KB금융 (105560)

다시 보여줄 리딩뱅크의 위용과 저력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
현재주가(4.14)	155,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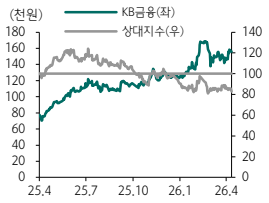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967.75
52주 최고/최저(원)	168,800/76,100
시가총액(십억원)	58,127.4
시가총액비중(%)	1.19
발행주식수(천주)	368,950.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49.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2.9
외국인지분율(%)	75.85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8.95
The Capital Group Companies, Inc. 외 48 인	6.7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8,700	9,055
순이익(십억원)	6,228	6,493
EPS(원)	16,903	17,718
BPS(원)	175,908	183,89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7,028	17,945	18,476	19,385
세전이익	6,985	8,197	8,626	9,053
지배순이익	5,078	5,843	6,203	6,510
EPS	13,093	15,671	16,827	17,660
(증감율)	12.5	19.7	7.4	4.9
수정BPS	152,438	163,496	182,196	199,856
DPS	3,174	4,370	4,560	4,840
PER	6.3	8.0	9.3	8.8
PBR	0.54	0.76	0.86	0.78
ROE	8.7	9.7	9.7	9.2
ROA	0.69	0.75	0.75	0.75
배당수익률	3.8	3.5	2.9	3.1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1분기 추정 순익은 약 1.9조원. 핵심이익 급증하는 가운데 1분기 ROE 12% 육박 예상

KB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0,000원을 유지한다. 1분기 추정 순이익은 YoY 11.5% 증가한 약 1.9조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1) 1분기 은행 원화 대출금은 0.4% 성장에 그치겠지만 2) NIM은 QoQ 2bp 상승해 순이자이익이 추가 개선되는데다 2) 증권 브로커리지수수료와 은행 신탁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수수료이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분기 핵심이익(이자이익+수수료이익)은 4.8조원에 육박해 QoQ 6.9%, YoY로는 15.0% 급증할 전망이다. 3) 판관비는 큰 이슈가 없어 YoY 3.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4) 그룹 대손비용도 약 5,500억원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한다. 1분기 예상 DPS는 1,090원으로 작년 1분기의 912원보다 약 19.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분기 경상 순익 체력이 1.9조원대까지 확대되면서 1분기 ROE가 12%에 육박하는 등 리딩뱅크의 위용과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1분기 CET 1 비율 하락하겠지만 2분기 중 상승 요인 상당.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을 듯

1분기 CET 1 비율은 13.55% 내외로 QoQ 27b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환율 상승 영향과 비은행 바젤 3 경과 규정에 따른 RWA 증가 압력,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및 자사주매입/현금배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그러나 2분기 중에는 다시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2분기 적용 기대 및 해외지분법주식 이익잉여금/지분법평가익 RWA 배제 추진 요인으로만 약 20bp 이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하락한다면 주주환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CET 1 비율이 다시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분기 CET 1 하락 폭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상반기에만 총 1.2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고, 2분기말 CET 1 비율에 따라 추가 자사주 규모가 결정될텐데 우리는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최소한 55%를 상회할 전망이다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은 총 11.6조원. 과징금 경감 모멘텀 계속 기대. 최선호주 유지

동사는 금번 주총에서 7.5조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는데 비과세 배당 가능 총 재원은 11.6조원이다. 따라서 향후 언제든지 4.1조원을 추가 전입할 수 있다. 타사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로 경쟁사대비 오랜기간 비과세 배당 실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홍콩 ELS 과징금과 관련해 금융위 최종 결론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4/15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연 시기가 길어질수록 경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적금융 등 각종 정무적 고려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 경감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KB금융을 업종내 최선호주로 계속 유지한다

2026년 04월 15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MW (032500)

미국 시장 최대 수혜주는 KMW입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4.14)	28,4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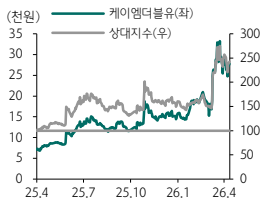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21.88
52주 최고/최저(원)	33,200/7,270
시가총액(십억원)	1,180.4
시가총액비중(%)	0.19
발행주식수(천주)	42,081.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26.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4
외국인지분율(%)	5.36
주요주주 지분율(%)	
김덕용 외 1 인	30.9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6.0	390.6
영업이익(십억원)	13.0	111.9
순이익(십억원)	12.4	114.7
EPS(원)	296	2,726
BPS(원)	3,315	6,04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4	97.5	171.0	390.6
영업이익	(45.5)	(23.8)	11.3	111.9
세전이익	(37.4)	(30.4)	10.7	114.7
순이익	(38.6)	(27.0)	10.7	114.7
EPS	(969)	(672)	256	2,726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964.84
PER	(9.06)	(21.43)	108.40	10.18
PBR	2.43	4.48	8.22	4.55
EV/EBITDA	(11.15)	(43.91)	60.08	9.36
ROE	(24.24)	(19.66)	7.82	57.50
BPS	3,607	3,211	3,377	6,103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12개월 목표가 50,000원 유지, 단기 실적 부진이 매수 기회일 것

KMW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2026년 6월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 이후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할 것인데 사실상 국내 대표 수혜 업체이고, 2) 미국 중국 장비/부품 수입 규제 강화로 미국 시장 내 M/S 상승이 예상되며, 3) 2년 뒤 미국/한국/유럽 내 매출 창출 능력을 감안하면 현 시가총액은 너무 낮고, 4) 광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시장 규모나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KMW가 국내 광통신장비 업체보다 향후 높은 시가 총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1분기 프리뷰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우려로 KMW 주가 부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국 KMW 주가는 장기 실적의 방향성과 기대 값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과 같은 단기 주가 조정이 나타날 시 적극 매수로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진정한 미국의 중국 장비/부품 규제 수혜주는 KMW, 버라이즌/AT&T 진출 기대

최근 미국의 중국 장비/부품 규제 강화가 국내 광통신장비업체 수혜로 돌아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진정한 수혜는 국내 무선통신 장비 업체인 KMW가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중국 장비/부품 업체 진입을 차단한다고해도 결국 유선에선 시스코/코히런트/루멘텀, 무선에선 에릭슨/노키아/삼성이 수혜를 받을 것이 뻔한데 유선의 경우 루멘텀을 통한 RF머트리얼즈 공급을 제외하면 아직 납품 성과를 나타내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을 통한 버라이즌/AT&T 수출 성과, 에릭슨 신규 진출을 통한 미국 통신 3사 매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예측이라고 보면 KMW/RFHIC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매출 규모로 보면 KMW가 가장 클 것이란 판단이다. 과거 레퍼런스 및 시제품 공급 현황, 구매 논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

광통신보다 5G/6G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 실제 성과는 KMW가 낼 가능성 높아

최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광통신장비 업체들에 환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는 큰 그림을 볼 것을 권한다. AT&T가 2027년 이후 CAPEX를 2.5배 증액하고 버라이즌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한다고 볼 때 2027년 통신사향 CAPEX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은 당연히 5G SA/6G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통신사 CAPEX 변동이 대다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이슈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 결국 버라이즌/AT&T의 CAPEX 증대의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그 주인공은 KMW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7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 KMW 미국 수출액은 2천억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스프린트/버라이즌 매출 경험을 토대로 보면 그렇다. 미국 시장 개화와 중국 장비 제제의 최대 수혜주는 결국 KMW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토대로 보면 국내외 경쟁사대비 현 KMW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2026년 04월 15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아이씨티케이 (456010)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하면 ICTK에 주목해야 한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28,000원
현재주가(4.14)	17,6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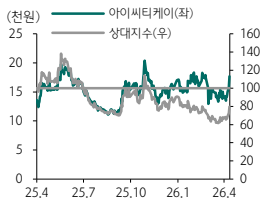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21.88
52주 최고/최저(원)	20,350/11,100
시가총액(십억원)	245.5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13,901.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41.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7
외국인지분율(%)	4.60
주요주주 지분율(%)	
이정원 외 16 인	27.5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7	29.6
영업이익(십억원)	5.2	8.7
순이익(십억원)	4.8	7.5
EPS(원)	345	539
BPS(원)	3,496	4,03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7	4.0	23.7	29.6
영업이익	(6.7)	(8.9)	5.2	8.7
세전이익	(5.8)	(6.7)	6.0	9.4
순이익	(5.8)	(6.7)	4.8	7.5
EPS	(467)	(499)	344	542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57.56
PER	(20.99)	(33.13)	45.93	29.15
PBR	3.02	5.23	4.51	3.90
EV/EBITDA	(18.32)	(27.99)	19.29	13.92
ROE	(22.20)	(15.36)	10.31	14.35
BPS	3,240	3,161	3,505	4,047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28,000원 유지

ICTK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미국 제도권 편입이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보안 수단인 양자암호 중요성이 높아졌고, 2) 최근 앤트로픽의 AI가 미국 행정, 금융망 내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 수천개를 해킹한만큼 보안 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3) 완전한 양자암호 솔루션이 구축되려면 보안키의 물리적 복제도 방지해야하는 만큼 ICTK의 PUF 기술이 각광받고 있고, 4) ICTK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보안 표준인 QSSN의 파트너사로서 향후 독점적인 보안 표준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조만간 암호화폐와 양자암호가 미국 금융의 주요 축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양자암호가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3/30일 미 노동부가 401K(퇴직연금) 옵션에 암호화폐를 비롯한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M1/M2에 반영되지 않는 일종의 그레이존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유동성 확장 정책의 대안으로 삼을만하다. 현재는 암호화폐가 미국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결국 빠른 시일내 스테이블 코인발 유동성 공급으로 미국내 주류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헷징 대비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에겐 무시하지 못하는 자산군이 되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의 퇴직연금 편입을 반대한 주요 이유로 해킹 관련 위험과 수탁 리스크가 꼽혔는데, 이는 양자암호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양자암호를 통해 신원을 물리적으로 복제 불가능하게 하고 정보의 해킹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양자암호 관련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ICTK가 향후 스테이블 코인 보안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선 글로벌 양자암호 표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초기에는 보안 솔루션이 난립하겠지만 정부/금융권 같은 보수적인 곳은 통일된 표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내 디지털 자산 PQC 전환의 예비 표준은 BTQ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QSSN 플랫폼이다. 특히 QSSN 플랫폼은 글로벌 양자 표준화 기구 QuINSA의 표준으로 지정도 됐다. 결국 QSSN 생태계에 진입한 업체가 향후 스테이블 코인 보안 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한국에선 ICTK가 양자보안칩인 QCIM칩을 기반으로 QSSN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아무래도 모바일을 통해 외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해야하니 전력 소모가 적고 환경변화에 예민하면 안되는데, ICTK는 전력이 필요없는 수동소자 기반의 VIA-PUF칩을 개발한 글로벌 유일의 업체이기 때문이다. 향후 ICTK와 QSSN이 보안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ICTK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2026년 4월 15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풍산 (103140)

올해 사상최대 영업이익 달성 가시화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0,000원
현재주가(4.14)	100,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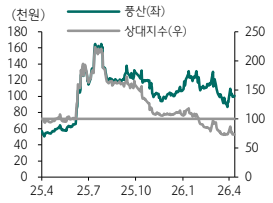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967.75
52주 최고/최저(원)	165,000/54,100
시가총액(십억원)	2,822.0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28,024.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66.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3.9
외국인지분율(%)	10.24
주요주주 지분율(%)	
풍산홀딩스 외 4 인	38.02
국민연금공단	8.1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024.2	6,281.2
영업이익(십억원)	355.5	372.3
순이익(십억원)	242.5	258.5
EPS(원)	8,652	9,224
BPS(원)	91,479	99,02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554.4	5,048.6	6,185.4	6,235.9
영업이익	323.8	297.4	395.2	362.0
세전이익	318.3	235.5	312.8	302.1
순이익	236.0	147.2	223.6	224.7
EPS	8,423	5,251	7,978	8,016
증감율	50.90	(37.66)	51.93	0.48
PER	5.93	20.28	12.47	12.41
PBR	0.63	1.29	1.12	1.05
EV/EBITDA	4.54	9.88	6.98	7.15
ROE	11.33	6.54	9.37	8.77
BPS	79,286	82,813	89,134	95,201
DPS	2,600	1,700	2,000	2,0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분기 동가격 상승으로 호실적 기록 전망

2026년 1분기 풍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조원(YoY +25.5%, QoQ +1.8%)과 1,014억원(YoY +45.5%, QoQ +10.8%)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903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신동 판매량이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4.7만톤(YoY +5.2%, QoQ +0.4%)이 예상되는 가운데 2) 1분기 LME 전기동 평균 가격이 12,845불/톤(YoY +37.5%, QoQ +15.8%)을 기록하며 250억원 이상의 메탈 관련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한편, 방산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로 2,341억원(YoY +15.0%, QoQ -43.0%)의 매출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률은 4분기와 유사한 10%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4) 동가격 상승으로 PMX를 비롯한 해외 신동 관련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전분기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동가격 다소 하락하겠지만 바닥 형성 전망

LME 전기동 가격은 1월말 사상최고치인 14,000불/톤 언저리를 기록한 이후 조정을 거치며 3월 중순에는 12,000불/톤을 하회했으나, 4월 중순 현재 12,000불/톤 중반을 기록 중이다. 연초 가격 급등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주요 광산들의 생산 차질과 동정광 T/C(제련수수료) 급락에 따른 공급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연말 연초 전세계 동정광 생산이 회복되었고, 특히 중국의 전기동 생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동 재고가 급증했다. 실제로 LME 전기동 재고는 거의 10년래 최고치를, 그리고 상해선물거래소 재고도 2월말 이후 30만톤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는 Chifeng Jinjian II 등 지난해 말 가동을 개시한 중국 신규 공장들의 램프업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분기는 정기 보수 확대로 중국 내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고정투자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과 중국 정부의 "비철금속 성장 안정화 계획"에 따른 감산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으로 4월 바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분기 평균 전기동 가격은 12,548불/톤(YoY +31.8%, QoQ -2.3%)로 예상되고 풍산의 영업이익은 802억원(YoY -14.4%, QoQ -21.0%)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풍산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60,000원을 유지한다. 올해 방산 매출 증가(15%)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가격 상승에 따른 대규모 메탈 관련 이익 발생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은 기존 사상최고치인 2024년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2026년 4월 15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한국전력 (015760)

SMP 상한제가 다시 언급될 만큼 쉽지 않은 상황

BUY (유지)

목표주가(12M)	55,000원(하향)
현재주가(4.14)	44,3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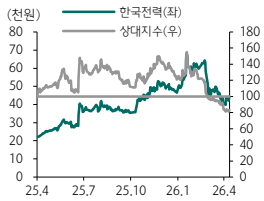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967.75
52주 최고/최저(원)	67,900/23,550
시가총액(십억원)	28,471.1
시가총액비중(%)	0.58
발행주식수(천주)	641,964.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671.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2.4
외국인지분율(%)	22.25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외 2 인	51.11
국민연금공단	7.9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8,277.8	99,606.0
영업이익(십억원)	16,417.0	17,436.7
순이익(십억원)	10,077.6	10,805.4
EPS(원)	15,511	16,601
BPS(원)	88,867	103,87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93,398.9	97,429.3	97,940.3	98,096.4
영업이익	8,364.7	13,490.6	6,203.9	5,852.8
세전이익	5,256.5	11,586.9	3,408.8	3,244.1
순이익	3,491.7	8,544.9	2,556.6	2,433.1
EPS	5,439	13,311	3,983	3,790
증감율	흑전	144.73	(70.08)	(4.85)
PER	3.69	3.55	10.60	11.13
PBR	0.32	0.63	0.54	0.52
EV/EBITDA	6.48	5.79	8.29	8.48
ROE	9.22	19.40	5.22	4.78
BPS	62,177	75,035	77,476	81,196
DPS	213	1,542	70	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55,000원으로 하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55,000원으로 기존대비 24.7% 하향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6년 예상 BPS에 목표 PBR 0.7배를 적용했다. 1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 평균 SMP는 107원/kWh으로 전년대비 7.1%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다만 3월부터 아시아 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SMP는 점진적 우상향이 전망되며 3분기 중 180원/kWh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일부 하향 안정화를 가정해도 향후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조정될 여지가 많다. 2026년 기준 PER 10.6배, PBR 0.5배다.

1Q26 영업이익 4.2조원(YoY +11.4%) 컨센서스 부합 전망

1분기 매출액은 24.7조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용과 일반용 성장으로 산업용 수요 둔화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4.2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1.4% 증가할 전망이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각각 5.6조원, 7.9조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9.7% 감소로 추정된다. 연료비는 유연탄 개별소비세 할인 종료 영향에 더해 석탄 발전소 이용률 상승으로 인한 유연탄 사용량 확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구입전력비는 기저발전 이용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SMP 약세로 구입단가가 하락하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발전소 이용률은 60.0%로 19.3%p 상승, 원전 이용률은 69.7%로 전년대비 22.7%p 하락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해외 원전 사업 관련 자회사 기타충당부채 설정액이 연간 1.5조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는데 2026년에는 감소할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실적은 중동 지정학적 불안정성 해소 시점에 달려있음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산업용 판매단가가 2021년 9월 이후 53개월만에 전년대비 하락 구간으로 진입했다. 전체 판매금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판가의 방향 변화에 따라 전체 판가도 동반 하락이 나타났다. 산업용 수요 감소폭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의 역성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외형 감소 가능성에 더해 비용도 증가하는 중이다. 2026년부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할인 종료,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조정의 인하 효과,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상승 등 크지 않지만 작지도 않은 비용 증가가 반영된다. 3월 이후 급등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연료비와 구입전력비 중심 원가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고리 2호기가 가동을 재개했고 3분기 새울 3호기 신규 가동이 예정되어 있지만 발전 Mix 개선만으로 변동비 증가를 만회하기는 어렵다. 중동 에너지 공급난 해소가 현실화된 이후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LNG 공급망 등에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전쟁 이전으로 즉각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8,960	-2.0%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955	-1.4%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6,550	4.7%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430	57.2%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9.23	4.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7.11	25.1%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43.34	30.7%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63	19.5%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13	206,000	206,500	0.24%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103,000	7.40%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SDI (006400.KS)	4/13	481,000	470,500	-2.18%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으로 보유 지분 전량 현금화 시 최대 11조원 유입 가능 • 현금 유입으로 유동 비율 1 회복 및 FCF의 플러스 전환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51,800	1.17%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13	106,800	111,400	4.31%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동국제강 (460860.KS)	4/13	10,410	10,530	1.15%	•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철근시장 개선에 따른 봉형강 수익성 개선 기대 • 중국산 후판 수입 규제에 따른 판매 확대와 후판 ASP 인상 기대
KSS해운 (044450.KS)	4/13	12,640	12,190	-3.56%	• 장기운송계약 기반 매출 비중이 높아 운임 변동성 대비 이익 가시성 높아 • 계약 갱신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이 확고해진 상황에서의 보다 제고된 주주환원 기대
리노공업 (058470.KQ)	4/13	111,800	111,600	-0.18%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대성하이텍 (129920.KQ)	4/13	11,000	11,600	5.45%	• 21년 이후 다수의 이스라엘 기업으로 방산 정밀 부품을 공급 •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수요 및 재고 확충 필요성 확대로 기존 대비 수요 확대 기대
우리넷 (115440.KQ)	4/13	13,000	18,460	42.00%	• 과기부 주도로 5G-SA 망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백본망 전송장비 구축 수요 발생 전망 • 피지컬 AI로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전송망 장비 신규/교체 수요 성장 예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24%	-3.60%p	+65.37%	+26.3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103,000	7.40%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51,800	1.17%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95,700	4.13%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06,500	23.5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00,000	1.39%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9,700	8.61%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5,900	9.87%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을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1,500	8.72%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93,300	17.36%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72,400	1.26%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80,000	16.93%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70,500	26.24%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9.27%	-8.16%p	+32.68%	-6.3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2.0%/0.4%,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51.13b/2.5%/27.8%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E--,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E--,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E --/--,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미국 3월 소매판매 (E 1.40%, 2월 0.60%)	▪ 한국 3월 PPI(전년비) (E--,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E--, 2월 ¥57.3B)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속보치) (E--, 3월 -16.3)	▪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잠정치) (E --/--, 이전치 -0.2%/1.60%) ▪ 미국 4월 3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이전치 1.60%)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